

“메가 전북으로 정권 성공 이끌 것”

‘민주 당대표 도전’ 김민석 전 총리, 전북서 ‘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 통해 지역발전 전략 제시

오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전 국무총리)가 3일 전북을 찾아 당원들과 대규모 전북 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당심 공력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새벽부터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전주역, 남부시장 등 민생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뒤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열린 전북 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를 통해 당 운영 비전과 전북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90여분 간 권리당원과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다.

메가 전북, 메가 집회를 주제로 개최된 집회에서 김 후보는 당대표 출마 배경과 당 혁신 구상 정권 성공을 위한 전략 등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순회 일정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김 후보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 든든한 당대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의 통합과 민생 회복,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만금 개발과 국가예산 확보,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지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내 소통과 혁신, 민생 중심의 정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한 집권 여당의 역할이 필요하며, 당대표가 된다면 당과 정부,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전북 방문 일정은 새벽부터 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3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린 '전북 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어지는 강행군으로 진행됐다. 총리 시절 '새벽 총리'라는 별칭을 얻었던 김 후보가 든든한 '새벽당 대표'가 돼 '새벽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녹인 행보였다.

김 후보는 오전 5시 40분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가장 먼저 찾아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상인들은 소비 활성화와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김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7시에는 전주역 광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당대표 선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소통하며 지역 민심을 살폈다.

오전 9시경에는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 관계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남부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전북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과 시내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오후에는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전북 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에 참석해 전북지역 권리당원들과 당직자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행사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당원의 목소리가 곧 민주당의 미래”라며 현장 중심의 정당 운영을 약속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을 통해 진행되

고 있다.

총정권 순회 경선이 지난 1일에, 부울경 순회 경선이 지난 2일, 영려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 미만의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권 경선(15일)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당선자에 대한 구체적 판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비전과 당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날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는 김민석과 함께 '전북동행' 최순모 회장과 동창육위원장 14개 전북 시·군 대표와 당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만호 기자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민주 이성운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검찰의 수사 인력·예산까지 제대로 정리해야 완성”

오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운 국회 의원(전주)이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검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반대 세력은 이리도 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입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인력과 예산까지 제대로 정리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총무회는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 폭주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반발 움직임을 언급했다.

이어 “법 하나 통과시켰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아



직도 막대한 예산과 수사 인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정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검찰 수사권을 되살렸으며, 그 끝은 결국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해”고 언급한 뒤 “검찰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기에 걱정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 검찰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며 “차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법률가 출신은 자신 한 사람뿐”이라며 “검찰을 잘 알고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사람이 필요하다.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함께 검찰개혁과 권력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새만금 국비 확보 총력

민주 김의겸 의원, 박흥근 기획예산처 장관 예방

현대차 9조 투자 완성 등 위한 예산 반영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박흥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핵심 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3차 심의를 앞둔 지난 7월 30일 박흥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예방하고, 군산과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김 의원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차 동차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 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관련 예산의 충분한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군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보틱스산업 조성 사업을 비



롯해 어업과 김 산업 지원,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군산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군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산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김재준 군산시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이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전라선 통합 KTX 운행 확대… 도민 이동권 개선 첫걸음” | 민주 이성운 의원

오는 9월 1일부터 전라선 고속철도 운행이 확대되면서 전북지역 철도 이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전라선 KTX 증편 요구가 이번 운행 확대에 반영됐으며 “전북도민 이동권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TX와 SRT가 9월 1일부터 ‘통합 KTX’ 체계로 운행되는 가운데 전라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는 주중 40회에서 45회로, 주말 45회에서 54회로 각각 확대된다.

상·하행을 합산한 기준으로 주중에는 5회, 주말에는 9회가 추가 운행된다.

특히 신설되는 열차는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오송~익산 고속선을 이용해 운행함에 따라 기존보다 이동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 이용객들의 철도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운 의원은 “전북도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철도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마련됐다”며 “운행 횟수 확대에 더해 신설 열차가

오송~익산 고속선을 이용하면서 이동시간까지 단축돼 도민들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의 만성적인 계약 난과 좌석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전주 KTX를 직접 예약해 본 적이 있는데, 표의 하버 이용객들의 불편을 지적했고, 이용률이 110%를 웃도는 현실을 언급하며 운행 확대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전주역 고속철도 증편 방향과 과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도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성운 의원은 “전라선은 전국에서도 고속철도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은 노선이지만 공급 부족으로 전북도민들이 명절과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운행 확대가 전북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전주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홍보

새만금공, 후속 분야 앞두고 내일 익산역·12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찾아 상담부스 운영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해 높은 청약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후속 분야를 앞두고 익산과 전주에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후속 분야를 앞두고 예비 수요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남권 주요 교통거점을 활용한 사전 분야 홍보 활동으로 마련됐다. 오는 5일 KTX 익산역과 12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KTX 익산역에서 진행했던 홍보에 이어 올해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홍보 권역을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민과 잠재 수요자들에게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미

래 가치와 개발 비전을 직접 소개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는 기관장과 경영진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1대1 맞춤형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분야 일정과 공급 방식, 토지 활용 방안, 투자 가치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수렴한 실수요자들의 의견은 향후 분야 전략과 홍보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공급 대상은 온비드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5필지(약 1만8,763㎡)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0필지(약 4,742㎡) 등 모두 45필지다.

이만호 기자

이번 후속 분야는 지난해 첫 분양에서 나타난 높은 관심과 완만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 기반 확충과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첫 분양에 보내주신 높은 관심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 후속 분야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현장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미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도 이러한 관심이 성공적인 후속 분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기내식·선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3일 항공기 기내식과 선박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도 집단급식 성격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연간 1억 명 가까운 국민이 이용하는 기내식과 선식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편의점 정보의 시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정읍=김대환 기자

제10대 정읍시의회 첫 임사회 마무리… 추경예산안 확정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3일 제 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김경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흉·배수로 우선 정비와 농로의 보수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고, 서항경 의원은 공공데이터 정책과 관련해 양적 공개를 넘어 시민제 감형 데이터 발굴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영현 의원은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착률 등 성과 평가 방식의 변화를 촉구했으며, 정상섭 의원은 샘고을시장과 관련, 사람을 불러들이는 과감한 투자와 차별화된 시장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건심의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가결했으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항경) 소관으로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가결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병제) 소관으로 ‘2026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가결하고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570억8,948원을 확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간 지독 불임지 토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토지 지목 현실화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